

## 어린이집 100곳 문 닫을때 노인시설 800곳 문 열었다

광주·전남, 저출산 해결 안되면 남은 어린이집도 절반 폐업 불가피  
“변화된 인구 분포·청년층 결혼관 등 반영해 장기적 대책 마련해야”

급격한 저출산과 고령화 여파로 광주·전남지역에서 1년새 어린이집은 100여곳이 줄어든 반면 노인 복지시설은 800여곳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은 전국 사·도 가운데 ‘어린이집 없는 행정동이 가장 많은 자치단체’ 중 한 곳으로 지목되면서, ‘아이도 없고, 맡길 곳도 없는’ 지방 소멸의 악순환이 우려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현재 남아있는 어린이집마저도 절반 가까이 폐업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1일 보건복지부의 ‘2023년 12월 말 기준 보육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지역 어린이집은 국·공립 159개소, 사회복지법인 82개소, 법인·단체 18개소, 민간 270개소, 가정 319개소, 협동 2개소, 직장 28개소 등 모두 878개소로, 2022년 940개소에 비해 6.6%(62개소)나 줄었다.

세부적으로 가정 어린이집이 363개소에서 319개소로 12.1%(44개소), 민간 어린이집이 296개소에서 270개소로 8.8%(26개소), 사회복지법인인 91개소에서 82개소로 9.9%(9개소) 감소했다. 전남지역 어린이집 역시 지난해 국·공립 209개소, 사회복지법인 147개소, 법인·단체 43개소, 민간 273개소, 가정 239개소, 협동 2개소, 직장 39개소 등 총 952개소로, 전년 999개소보다 4.7%(47개소)가 사라졌다.

특히 전남의 경우 가정 어린이집이 268개소에서 239개소로 10.8%(29개소), 민간 어린이집이 303개소에서 273개소로 9.9%(30개소) 적어졌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 1명이 가임 기간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이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보이고 있는 데다 저출산 여파로 신생아 울음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면서 지역 어린이집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게 광주시와 전남도의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저출산 현상을 일부라도 극복하기 위해선 ‘아이도 없고, 맡길 곳도 없는’ 인구 소멸의 악순환부터 끊어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시장 논리에 따라 어린이집의 감소를 무작정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다만 앞으로의 상황이 더 심각하다는 게 문제다. 광주·전남지역은 여전히 어린이집 정원보다 현원(어린이 수)이 현저히 적어 이용률이 60%대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광주 어린이집 총정원은 4만3399명이지만, 현원은 2만8761명으로 이용률은 66.3%에 불과하다. 전남 어린이집 역시 정원은 5만2578명이지만, 현원은 3만5344명으로 이용률은 67.2% 수준에 그쳤다. 결국 저출산 문제가 지속된다면, 그나마 버티고 있는 어린이집마저도 절반 가까이는 문을 닫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전남지역은 저출산 여파로 어린이집이 아예 없는 행정동만 101곳으로, 아이를 낳아도 맡길 곳이 없는 지역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어린이집이 줄어든 반면 노인 복지시설은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3년 기준 광주지역 노인복지시설은 전년 대비 461개소, 전남은 355개소나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동시에 찾아온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두 현상을 하나의 패키지로 보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제언 등을 내놓고 있다.

김경례 광주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점점 저출생,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 만큼 변화된 인구 분포, 청년들의 결혼·가족관 인식 등을 반영한 정책도 동시에 만들어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 “지금까지 더위는 더위도 아냐”... 본격 무더위 시작

광주·전남 내륙과 바다까지 필필 뽕게 만들고 있는 폭염이 이달 초에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한반도 상공에 이중으로 겹쳐있는 고기압(북태평양 고기압·티베트고기압)이 당분간 맹위를 떨칠 것으로 예상돼 가마솥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3일 아침 최저기온은 25~27도, 낮 최고기온은 33~37도에 분포하는 등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질 것”이라고 1일 예보했다. 2~3일에는 대기가 불안정해 광주, 나주, 담양, 화순 등 일부 지역에 5~20mm의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밤사이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덥고 습한 바람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 않아 열대야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와 목포에는 지난달 21일부터 11일 이상 열대야가 발생했다.

광주·전남에서는 13일 넘게 폭염특보가 이어지면서 두달 간 총 168명(광주 24명, 전남 144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지난 6월 17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남 15개 시·군 57개 능가에서 닭·돼지·오리 등 가축 총 3만 3187마리가 폐사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31일 고수온 심각 1단계를 발령했다. 함평만·득량만·여사만 등 전남지역 앞바다에 고수온경보가, 전남 북부·중부 서해 앞바다와 가막만에는 고수온주의보가 내려졌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단체전 3연패  
세계 최강  
‘펜싱 코리아’

올림픽 3연패를 이룬 펜싱 사브르 남자단체 한국 대표팀의 오상욱(왼쪽)이 3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그랑 팔레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펜싱 남자 사브르 단체 형기리와의 결승에서 마지막 득점을 기록하며 승리한 뒤 구분길과 포옹하며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오상욱 사상 첫 2관왕... 여자 사브르 단체전도 메달 기대

한국 여자 양궁대표팀에 이어 남자 펜싱 사브르 대표팀이 열대야를 겪는 시원함을 선물했다.

오상욱(27·대전시청), 구분길(35·국민체육진흥공단), 박상원(23·대전시청), 도경동(24·국군체육부대)으로 구성된 펜싱 남자 사브르 대표팀이 1일 프랑스 파리 그랑팔레에서 열린 2024 파리 올림픽 남자 사브르 단체전에서 형기리를 45-41로 꺾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관련기사 18면>

앞서 남자 사브르 개인전에서 이번 대회 한국의 첫 금메달리스트가 됐던 오상욱은 44-41에서 금빛 찌르기에 성공하면서 ‘2관왕’에 등극했다. 한국 펜싱 사상 첫 2관왕이다.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단체전 금메달 역사를 시작했던 ‘말형’ 구분길은 코로나19로 1년 마뤄 2021년 진행된 2020 도쿄 올림픽에 이어 이번 대회까지 3연패를 완성했다. 2016년 리우데자네이

루 대회에서는 종목 로테이션으로 사브르 단체전이 열리지 않았다.

특히 한국은 ‘펜싱 강국’ 형기리를 상대로 아시아 국가 최초로 첫 3연패를 완성해 의미가 더욱 컸다. 앞서 준결승에서는 펜싱 중주국이자 이번 대회 개최국 프랑스를 꺾으면서 세계 정상급 실력을 과시했다. 구분길은 노련함으로 우승 고비였던 프랑스와 준결승전 기싸움을 전개하면서 베테랑의 면모를 보였다. 오상욱은 금메달을 확정하는 마지막 점수를 완성하면서 도쿄대회에 이어 다시 한

축산공화 착공 전 넘어야 할 산은? ▶6면

복스 ‘곤충은 남의 밥상을 넘보지 않는다’ ▶14·15면

1위 팀 맞아? KIA 충격의 30실점 대참사 ▶19면

번 구분길과 단체전 금메달을 합작했다.

‘신예’ 박상원도 결승전 첫 주자로 나서 스타트를 잘 끊어냈다. 앞선 경기에서 피스트에 오르지 못하고 기회를 노리고 있던 도경동은 7라운드에서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고, 전광석화 같은 공격으로 득점에 성공했다. 이후 내리 5득점을 성공시키면서 형기리의 허를 찔렀다.

펜싱은 여자 사브르 단체전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고 있다. 도쿄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합작했던 최세민(전남도청), 전하영(서울시청), 전은혜(인천 중구청)가 새 멤버인 윤지수(서울시청)와 3일 메달을 향한 도전에 나선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총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2weeks  
고함양 고함도 레티놀 분기형  
필자 주름 용출 단 2주만에 개선  
IOPE LAB

슈퍼레티놀  
단 2주만에 주름잡다

| 아이오페 레티놀 엑스퍼트 0.1% |

주름을 위한 당신의 노력을, 얼마나 효과가 있었나요?  
이제, 주름보다 강한 슈퍼레티놀로  
확실한 주름 개선 효과를 느껴보세요

레티놀은 아이오페

IOPE